



남원 도동동, 공공비축미곡 민원 예방 선제 대응

남원시 도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 등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에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동은 지난 7일부터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요령에 따라 '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 및 물량 배정 내역(농지소재지 원칙)에 따라 마을별 물량 배정 농가에 대해 희망자 누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 재배농가 및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농가 961여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도동동 북북(카북), SNS 홍보, 통장회의 자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도동동은 산물 비가 16농가 중 54톤백으로 신청되어 배정 기준에 따라 신청 농가 농경영역 비 재배면적 기준 배제되는 농가 최소와 3,000㎡미만 농가 제외, 비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1.2순위 1톤백 20포대 40kg 추가 배정하여 13농가 15톤백을 우선순위로 산물비를 배정하였다. 소선자 도동동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관내 농민들이 보조사업에 누락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기업 경영 환경 개선 촉매 역할 되길”

진안군-농협 진안군지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은 10일 관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을 위해 농협은행 진안군지부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관심 지역 기업 대상 특례 보증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제공

이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 기업, △지방 이전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지역 기업이 특례보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농협은행의 저금리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진안군의 이차보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직전 연도 매출액의 20%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

특례보증은 종료된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다. 군은 최종 대출금리에서 2%의 이차보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이달 내 공고 예정인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용보증기금과 NH농협은행 진안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금 소진 시



옥당 김정철 명인, 부채 52점 남원시에 기부

남원시 금동 관계자는 남원에서 부채연구사(광한서로 29)를 운영하고 있는 옥당 김정철 명인이 부채 52점을 남원시에 기부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부채연구사 남원다움관 추가 건립을 위해 시에서 매입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부받은 부채는 추후 개관 예정인 남원다움관 2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부채 제작 30년 경력의 김정철 명인은 "나고 자란 남원시에 기부를 통해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전파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독거노인 등에 파스 전달

남원시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은주) 맞춤형 복지팀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 구입한 파스를 1일 1가구 방문시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수시로 건강을 살펴줄 겨우가 없는 가구나 모정 및 경로당 어르신들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음에서 직접 와 이른 곳에 붙여주니 몸도 마음도 시원해 멀리 있는 자식보다 백번 천번 좋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은주 읍장은 "파스 하나로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1일 1가구 방문에 더 보람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농악단, 제43회 전북 시군 농악 경연대회 대상 수상

임실군 농악단이 지난 5일 제43회 전북 시군 농악 경연대회에서 대상(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43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농악경연대회 대상 수상하는 임실군 농악단

사)한국국악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통 농악의 계승 발전과 저변 확대 및 지방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며, 올해는 완주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어 열린 경연의 장을 펼쳤다. 전북 시군 농악 경연대회에는 총 13개의 팀이 참가하

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농악 실력을 겨뤘다.

신옥금 사)한국국악협회 임실군지부장은 "임실군을 대표하여 출전한 시군 농악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매우 기쁘고, 그동안 함께 연습하고 부단히 노력해 준 단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임실 농악의 이름을 높이고 전통 농악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정읍농협, 정읍시에 1000만원 상당 라면 기탁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은 10일 농촌사랑기금을 활용해 정읍시에 1000만원 상당의 라면 321상자를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진행된 기탁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유남영 조합장, 이사 및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탁된 라면은 내장상동, 수성동, 시기동, 연지동 4개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희망 나눔 공유냉장고'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온정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남영 조합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공유냉장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며 "정읍농협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이웃 사랑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주신 유남영 조합장과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향교동 통장단,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기원' 결의

남원시 향교동 29개 통장협의회(회장 모춘재)는 10월 8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 이는 지난 9월 학교 후보지 3개소에 남원시 운봉읍 일원이 포함되면서 남원 유치 의지를 다지고자 진행했다. 이날 통장들은 우남원시가 접근성, 대중교통,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후보지 중 최적의 장소임을 재차 강조하며, 오는 11월 경찰청의 선정발표가 남원시로 확정되



남원향교동 통장단,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기원' 결의

기를 염원하며 축구결의문을 낭독하였다. 이에 지나가는 시민도 구경하며 함께 결의를 다졌다.

모춘재 협의회장은 "지방 소멸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에 설립되어야 한다"며 "우리 향교동 통장단의 결의는 남원시민들의 설립 의지를 나타내는 촉발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원불교 미령교당, 진안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후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원불교 미령교당(교무 서경은)에서 원불교 미령교당 100년 기념 대법회를 맞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서경은 교무는 "우리 진안군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좋은 뜻을 담아 장학재단에 후원하는 모습을 보고 미령교당 교인들과 함께 후원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9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2024년 10월 11일(금) 오후 6시30분~
전주한옥마을 특설무대(경기전 앞)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출연진



사회-정지원



임창재



백미연



노승재



백명일



백명주